

사회



“성년 됐어요” 광주교대 초등학교 예비교사 345명이 제40회 성년의 날인 21일 오후 교육대학원 대강당에서 전통 성년식을 치른 뒤, 박남기 총장과 함께 교정을 거닐며 성인으로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선거 직선제 폐지

16대부터 이사회 직접 임명

조선대 이사회가 이번 제15대 총장 선거를 마지막으로 다음(16대) 총장 선거부터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가 직접 총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법인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이 제출한 총장선출 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그동안 2차례 대자협이 제출한 규정안이 이사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규에 맞지 않다고 수정요구하면서 의견을 거부했다.

이날 승인된 안은 총장 임후보 추천인 완화(50~20명), 총장 후보자 추천위의 선거 업무 담당, 복수의 득표자 이사회 추천 등이다. 이사회는 총장 선거일이 방학과 겹치는 만큼 선거일을 조율하는 한편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총장 임명 절차를 밟는 내용을 총장 선출안에 포함키로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조선대도 직선제를 폐지해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광주시장에 일제시대 지하병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인 건설 추정

광주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건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병커가 발견됐다. (사진) 21일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이하 푸른길)에 따르면 지난 15일 푸른길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시 동구 학동 옛 남광주역사 화장실 뒤편에서 ‘ㄱ’자 모양(폭 1.5m·길이 18m·높이 2.5m)의 지하병커를 발견했다. 병커는 반원형의 아치형태로 벽과 천정이 25cm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다. 또 철골 구조 대신 대나무를 이용해 지어졌으며, 벽에는 보강을 위한 부속기둥이 규칙적으로 설치돼 있다. 천정에는 지름 30cm의 환기 구멍 2개가 뚫려 있다. 광주 지역 전문가들과 답사를 마친 푸른길은 태평양전쟁 당시 주요 일본



인을 임시로 대피시키기 위한 시설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병커 안에서 환풍기와 10여개의 젓갈통도 발견돼 지난 2000년 남광주역이 폐쇄된 이후 남광주시장 상인들이 창고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광주역 지하병커에 대한 제보는 푸른길운동본부(062-514-2444)로 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weather map of Korea, a table of regional temperatures, and a 7-day forecast for Gwangju.

갈수록 무관심... 초라한 오월정신

아쉬움 많은 5·18 32주년

5월 만장전(晩章展·5일)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5·18민중항쟁 32주년 행사가 지난주 전야제와 기념식, 20일 시도민 한마당·국민대회 등을 치르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오월의 바람이 다시 세상을 깨워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애초 대선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월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수 세계박람회 등의 영향으로 열기가 기대에 못 미쳤다. 기념식은 국가 공식 기념행사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4년 연속 불참한

데다 지난해까지 국무총리가 대독해 왔던 대통령 기념사마저 총리 기념사로 격을 낮춰, 5·18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를 성토했다.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대선 주자와 정치인만 몰려 정치 일색으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5·18과 관련된 전시·공연, 체험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한 17일 전야제와 식전행사는 멀어져가는 80년 5월을 기억하고, 당시의 정신을 새로운 형식에 담아 조명했다. 특히 19~20일 금남로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꾸며진 각종 체험행사와 콘서트 ‘바람’, 청년계승대회, 시도민한마당 등에는 학생·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호응했다.

체험이나 문화·예술행사에 비해 2012 광주아시아포럼, 32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연구의 확장과 재구성’ 등 학술행사는 준비 미흡과 참가 저조로 성과가 기대 이하였다는 분석이다. 전반적으로 체험, 문화·예술행사에는 시·도민의 참여가 늘었지만 기념식, 학술대회의 참여 인원은 상당히 줄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종 5·18 32주년 기념행사위 집행위원장은 “내년에는 5·18의 현장이기도 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를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News snippets including '한국 산악인 1명 실종' (A Korean mountaineer goes missing) and '에베레스트 등정후 허산중' (After Everest summit, mountain sickness).

Large advertisement for Daemyung Resort News, featuring golf, skiing, and other resort activiti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062)380-0725.

Advertisement for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Jueungjin Driving School). Features a large image of a driving school building and various vehicles like a truck, bus, car, and motorcycle. Text includes 'www.yjcdive.co.kr' and '062-951-5100'.